

碩士學位論文

어머니의 就業有無가 子女의
學業成就度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 濟州市 地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永 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商業教育 專攻

朴 永 善

1999年 8月

어머니의 就業有無가 子女의
學業成就도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 濟州市 地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永 春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商業教育 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朴 永 善

朴永善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9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國文抄錄〉

어머니의 就業有無가 子女의
學業成就度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 濟州市 地域을 中心으로 -

朴 永 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商業教育 專攻
指導教授 金 永 春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비취업모는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취업모는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비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다섯째,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471부를 연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으로는 SAS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평균, 백분율, 카이검증(Chi Square test),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비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등에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와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녀학습지원 정도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취업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잘 이루어질수록 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문제	4
3.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학업성취도의 개념	6
1)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	6
2) 학습태도	9
3) 학습습관	12
2.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4
1)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 차이	15
2)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고찰	17
3)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9
III. 조사방법 및 절차	23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23

2. 조사도구	23
3. 자료분석	28
IV. 연구결과의 해석	30
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	30
2.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	32
1) 자녀의 학업성적의 차이	32
2)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	35
3) 자녀의 학습습관의 차이	37
4) 자녀의 학습태도의 차이	39
3. 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	42
1) 자녀의 학업성적의 차이	43
2)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	46
3) 자녀의 학습습관의 차이	48
4) 자녀의 학습태도의 차이	50
4. 비취업모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관관계와 영향력	52
1)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53
2)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54
5. 취업모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관관계와 영향력	56
1)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56
2)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57

V. 요약 및 결론	60
1. 요약	60
2. 결론 및 제언	63
참고문헌	65
ABSTRACT	70
부 록	73



표 목 차

<표 3-1>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	26
<표 3-2> 조사도구의 신뢰도	28
<표 4-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	30
<표 4-2>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이	33
<표 4-3>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	36
<표 4-4>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따른 학습습관의 차이	38
<표 4-5>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40
<표 4-6>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이	43
<표 4-7>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아 개념의 차이	47
<표 4-8>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른 학업습관의 차이	49
<표 4-9>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른 학업태도의 차이	51
<표 4-10> 비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53
<표 4-11> 비취업모의 교육수준 및 자녀교육태도의 영향력	54
<표 4-12>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56
<표 4-13>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의 영향력	57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학습하고 가족의 한 성원으로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타인과의 인간관계이나 생활방식을 습득해 가는 곳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사회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동시에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할 책임도 있다.

정원식은 “인간은 생물학적 객체로 태어나 부모와 최초로 인간관계를 갖기 시작하며 부모로부터 사랑과 권위를 경험하고 행동을 모방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¹⁾ 하였다.1) 이렇듯 강한 영향력을 지닌 가정의 구성요인 중 자녀의 인성발달과 교육적 측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의 역할이며 성장기에 있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존재는 그 어떤 환경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발달은 현대사회를 여러 가지 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수백 년 동안 유교 사상이 자리잡았던 한국의 가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가족제도 및 가치관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직업구조의 전문화·다양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급속히 확산시켰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기회 증대로 인한 고학력화는 직업관과 태도 등을 변화시

1) 정원식, 『인간관 교육』 (서울 : 음영사, 1975), p. 91.

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 1984년에는 여성 취업자 수가 38.5%를 차지하였으며, 1993년에는 47.8%, 1998년 6월 현재 그 비중은 48.1%까지 증가하였다.²⁾ 이중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5년 40.7%, 1998년에는 46.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³⁾ 앞으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의 비중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여성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취업모의 경우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중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성장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는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비취업모에 비해 시간적,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제약을 받는 점이 많아 자녀와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녀교육에 관한 문제를 재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많은 연구결과들⁴⁾에서 비취업모 자녀가 취업모 자녀에 비

2) 통계청, 「고용동향」, 6월호, 1998.

3)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4), p. 24.

4)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김경숙,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성격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 41-44 ; 김용관, “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적과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 49-50 ; 이봉섭,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자아개

해 학업성취 수준이나 성적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련된 변인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채 단지 취업유무만을 단편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로서 취업유무와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키는 많은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몇몇 연구⁵⁾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가족배경 변인이나 취업관련 변인을 고려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유무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는 시간,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변수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어머니와 자녀간의 시간 사용과 자녀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으나 결과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단순히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보다는 취업요인과 관련된 상호작용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해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련하여 교육수준이나 자녀학습지원의 참여정도, 자녀에 대한 교육적

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 29-31 등이 있다.

5) 대표적인 연구로는 장윤선,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p. 52-55와 김영화,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학업성취,” 『여성연구』, 31호, 1991, pp. 68-76 등이 있다.

기대,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등의 자녀교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직업유형이나 근무형태와 같은 직업특성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인 측면에서 자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 하에 이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교육에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믿고 있는 경향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취업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비취업모는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취업모는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비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다섯째,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 3개의 초등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둘째, 자녀의 학업성적을 국어, 수학 성적에 한정하였기에 국어와 수학 성적으로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업성적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업성취도의 개념

학업성취도는 학교교육의 결과이며 그것은 곧 교육목표의 성취 정도를 의미한다.⁶⁾ 학업성취도는 교육의 과정이며 결과이고, 또한 교육목표의 성취 정도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학업성과를 의미하지 않고 학업성과를 낳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과정 및 결과 모두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학업성취도는 학습의 성과가 축적된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으로 본다면 단순히 학교성적뿐 아니라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하부요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선행 연구⁷⁾를 참고로 하여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업적 자아개념(academic self-concept), 학습태도(learning attitude), 학습습관(studying habit) 등의 네 가지 하부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개념정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그가 처해 있는 생활의 장에서 자기자신 및 그의

6) 박도순, “교육의 본질과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진흥』, 31호, 1996, p. 55.

7) 장윤선, 전계논문 ; 이봉섭, 전계논문.

주변 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말한다'고 하였다.⁸⁾

Hall과 Lindzey는 자신의 행동, 능력, 신체 또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 견해, 가치의 총체라 정의하였고 또, 자아 개념이란 '인간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을 뜻한다고 하였다.⁹⁾

따라서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나와 관련된 모든 지각이며 자신에 대한 평가로,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생활의 장에서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행동의 동기적 요소로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자아개념은 성격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태도, 동기, 능력 등의 개인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본다. 한 개인이 그가 처한 환경에서 추출해 낸 자신에 대한 지각을 자아개념이라 볼 때, 자아개념은 그 개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행동의 기초나 지침이 되므로 모든 경험은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지각, 평가되고 의미를 가짐을 시사한다.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나타내거나 반영하는 자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자신에 대한 관점 즉 자아개념은 각 개인의 특이성 및 주관적 현실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한편, 자아개념의 정의나 의미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많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¹⁰⁾

첫째, 자아개념을 인간행동의 결정자로서 작용하는 심리적 과정의 한 군집

8) 정원식,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1980), p. 11.

9) C. S. Hall, & G. Linzey, *The theory of personality* (N. Y. : willey and sons, Inc., 1978), pp. 211-212.

10) 이종승, “자아개념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0, p. 12.

으로 보는 경우와

둘째, 인간이 그 자신을 대상화해서 지각한 자기자신에 대한 태도나 느낌의 총체로 보는 경우이다.

인성심리학 영역에 있어서 전통적인 견해는 자아개념과 같은 정의적 특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아개념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 발달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환경 여하에 따라 인간의 정의적 특성의 하나인 자아개념도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아개념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개념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발달된다. 둘째, 자아개념은 기본적으로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개념으로 항상성을 추구한다. 셋째, 개인은 그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일반적 자아개념은 여러 하위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하위변인들 중에서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으로써 학업적 자아개념(academic self-concept)을 들 수 있다. Shavelson (1976)은 자아개념을 위계구조로 나타내었는데 일반적 자아개념을 학문적 자아개념과 비학문적 자아개념(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자아개념)으로 나누고 다시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¹¹⁾

송인섭(1987)은 일반적 자아개념의 주요 하위변인을 학문적 자아개념, 중요 타인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으로 분류하고 학문적 자아개념을 다시 학급

11) R. J. Shavelson, "Self-Concept : Validation of Construed Interpret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1976, pp. 13-14.

자아개념(classroom self-concept), 능력 자아개념(ability self-concept), 성취 자아개념(achievement self-concept)으로 분류하였다.¹²⁾ 그는 이들 하위요인들, 즉 학급 자아개념은 교실내 활동에서 학생의 학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고, 능력 자아개념은 학업에 관련된 능력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며, 성취 자아개념은 실제 학업성취에 관련된 지각으로 학교의 학업에 관련된 일에 대한 성공, 실패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황정규(1977)는 자기자신을 평가받는 자아개념을 12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학업적인 영역과 비학업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 영역 사이에 있어서 자아개념의 상관은 +.35이고 이러한 두 영역에서 모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면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자아개념과 성적과의 상관이 +.25인데 반해 학업에 관련된 자아개념과 성적과의 상관이 +.50으로 보고하였으며 학업적 자아개념은 초등학교 말에 분명히 결정된다고 하였다.¹³⁾

이 같은 논의에서 자아개념은 흥미나 태도보다 더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라는 점과 학업성적의 중요한 예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습태도

태도를 정확히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반 태도는 그 대상이 외부에 있으므로 특정 대상에 따라 그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상이하다. 예를 들면 태도를 개인이 관계를 맺

12) 송인섭, “자아개념의 측정 및 평가,” 중앙교육평가원 연구보고, 1987, p. 13.

13) 황정규, “정의적 행동특성, 사회계층, 학교성적의 인과관계,” 『고려대학교 사범대논문집』, 1977.

고 있는 모든 대상과 사태에 대한 그 개인의 반응에 지시적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및 신경적 준비상태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어떠한 특정 대상에 대한 찬동 또는 불찬동의 일반화된 반응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정서적인 경향성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또한 태도란 주어진 사물이나 사상에 관련하여 정서적으로 주어진 방향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¹⁴⁾

이상의 태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비교적 일치된 견해를 보면 태도란 한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의 준비상태 또는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경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태도란 인간 행동에 있어서 한 개인의 일반화된 경향, 또는 상태이며 한 개인으로 하여금 그의 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행동하느냐를 결정짓는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태도의 특징은¹⁵⁾

첫째,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 결과이다.

둘째, 특정한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반응 경향 즉, 행동 성향이다.

셋째, 비교적 지속적이고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보다 심층에 속하는 행동성향이나, 그 구성요소별로 분류해 보면 인지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태도는 심리학에서 행위에 대한 지적 통제를 지시하는 심리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심

14) 정희선, 전제논문, p. 17.

15) 정원식 외, 『아동발달과 생활지도Ⅱ』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2),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재, p. 39.

리학자들은 행위상황 자체가 행위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객관적인 인간 내부의 특정한 작용들을 추론하기에 힘썼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상된 태도라는 개념은 인간이 무엇을 보며, 본 것을 어떻게 해독하는지를 조직화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Rosenberg에 의하면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 정서적 요소(affective component), 협력적 요소(coactive compon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구성요소는 상호 관련되어 있으나 모든 태도가 그들의 체계적 구조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¹⁶⁾ 태도는 수많은 특성들 속에서 서로 상이한 점을 지니고 있어 부분적 특성들의 특별한 유형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일반적인 특성으로써 태도는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는 반응의 준비 상태이며 다소 지속적인 것으로 개념화되어야 하고, 대상과 상황의 양면 지향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태도는 관련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선유경향(predisposition)을 포함하고, 특정 자극 혹은 상황에만 결부된 개별적인 특수한 것도 있으며, 극히 넓은 범위의 다양한 대상에 관련을 갖는 일반적인 반응경향을 지니기도 한다고 하였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태도의 자극은 인간 내부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수단적인 행위에도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학업에 대한 태도는 교과를 좋아하는 태도, 학교를 좋아하는 태도, 학습에 열중하고 끝내는 태도, 규율을 지키는 태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¹⁷⁾

16)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1965, p. 15.

첫째,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특정한 태도가 습득되고 형성된다.

둘째, 동일시 과정을 통해 태도학습이 이루어진다.

셋째,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아 태도학습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사회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클럽이나 단체와 같은 집단에 소속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동일시 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 집단은 준거집단이 된다.

Bloom은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교과목에 관련된 태도가 교과성적의 변량을 높게 예측함을 밝혔다. 교육성과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물리적 환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는 있으나 그 설명량은 정의적 성취에 비해 더 적음을 밝혔다.¹⁸⁾

이상에서 일반적인 태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태도를 살펴 보았는데, 학습장면에 있어서 학업에 대한 태도도 다른 일반적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학습된 것이다. 즉 학교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는 여러 교과목을 학습하면서 학습과제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의 개념을 갖게 된다.

3) 학습습관

학업성취 예언 변인으로서의 학습습관은 학습할 때 취하는 일관된 행동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김기석은 학습습관을 지능지수 못지 않게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학생의 일상생활 중 학습

17) 정원식 외, 전게서, pp. 197-203.

18) B. S. Bloom,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McGraw-Hill Company, 1976), pp. 4-5.

에 대한 동기, 태도, 기술, 습관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¹⁹⁾

또한 학습습관 검사는 '공부에 지장을 주는 좋지 못한 학습동기, 태도, 기술, 습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며 학업에 있어서 곤란을 느끼는 학생을 교사가 이해함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학생의 학습태도와 습관, 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의 학습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자료를 얻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업적 자아개념, 학교관련 태도, 교과관련 흥미 등이 학습과정에 몰입되는 정의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성격, 학습습관, 정신건강은 내면화된 정의적 특성이 학습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외현되는 행동양식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즉 학습습관은 행동적 요소를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습관은 학업성취와 정비례하여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동기조성 및 학습태도와 학업성취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김기석은 학습습관과 학업성적과의 상관이 .45로서 학업성적 예언에 지적 능력 다음으로 좋은 예측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최정훈(1961)도 학습동기와 습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지능이 동일하더라도 학습습관이 좋은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습습관은 초등학교 남녀 모두 비취업모 자녀가 취업모 자녀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는 학습습관과 학업성적과의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²¹⁾

19) 김기석, 『학습습관 검사 해설 및 시행요칙』 (서울 : K. T. C, 1962), pp. 3-10.

20) 조의숙,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한 일 연구-학습습관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승실대학교 논문집』, 제16집, 1986, pp. 41-52.

21) 최정훈, "학습동기와 습관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1, pp. 11-13.

한편, 지능, 학업적성, 성격, 시험불안 등이 학업성적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조작하여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는 어렵다. 이와 반대로 학습습관, 학습기술은 외적 조작이 가능하고 비교적 용이하므로 학습습관 또는 기술을 개선시킨다면 학업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설정 하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²²⁾

이와 같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변인 가운데 고정불변의 변인보다는 불변적이며 비교적 조작가능한 요인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습습관은 외적 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시일 내의 집중적인 효과적 학습기술 훈련에 의한 변화가 불가능하며, 쉽게 효과적인 학습기술의 습득을 가져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2.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취업모보다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더 뛰어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근래의 연구들은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녀일수록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더 우수하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 몇몇의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자녀와 어머니가 공유하는 시간의 양과 질,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자녀에

22) 이승자, 전개논문, p. 14, 재인용.

대한 교육적 기대, 의사소통의 개방성이나 대리모의 존재유무 등과 같은 변인들이 훨씬 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어머니 취업에 따른 영향력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영향 변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1)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 차이

오늘날 가정은 부모와 미혼녀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로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아동들의 교육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Hutnet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아동의 변인들,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²³⁾

즉 초등학생들은 어머니가 직업을 갖지 않았을 경우에 좋은 학업 성적을 나타냈고 고등학생의 학업 성적은 어머니의 직업에 의해 유익한 영향을 받았으나 어머니가 시간제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나타냈으므로 어머니의 직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과 일치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학업 성적과 자아 개념은 성, 학년, 수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어머니의 취업이 영향이 거의 없거나 긍정적인 결과

23) F. C. Hutnet, "Mother's Education and Working: Effect on the School Child," *Journal of Psychology*, Vol, 82, 1972, pp. 81-93.

가 나타난 연구들이 있는데 이용숙 등은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²⁴⁾

첫째, 어머니가 아동과 보내는 시간의 양과 질이다. 어머니의 취업은 아동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결과는 대체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동과 함께 보내며 무슨 활동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다. 어머니의 취업은 가정의 소득을 높이고 아동의 교육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아동의 교육적 혜택은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이라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들은 아버지가 있는가의 여부와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아동을 돌봐 줄 사람이 있는가 등에 따라 취업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더 유능하고 높은 학력을 소지할 가능성이 크므로 취업 요인이 학력과 기타 요인을 매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어머니의 부재시에 아동을 돌봐 줄 사람이 있는가, 대리모의 질은 어떠한가 하는 대리모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간과 관련된 문제로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안정되고 높은 질을 갖추었는가에 따라 어머니 취업의 영향이 달라지며 대리모 요인은 어린 시기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24) 이용숙, 최상근, 김영화, “어머니의 취업과 학교 교육 및 자녀의 성취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1988, pp. 182-187.

넷째, 어머니의 학교 활동 협조관계를 들 수 있다. 숙제에서의 협조, 가정학습 지도, 학급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등 학교와 연결짓는 학부모 활동이 학생의 성취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고찰 해 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머니의 직장 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인 통제와 더욱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고찰

이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범모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교육풍토, 문화, 가정환경, 학급의 사회적 환경 등의 환경 변인과 선행학습 및 일반능력, 정의적 특성, 학습방법 등의 학습자 변인, 그리고 수업체제 평가체제 학습집단의 구성, 교사행동 등의 수업의 세 가지 변인으로 나누었다.²⁵⁾

이 중 이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가정환경 변인에 대해 알아보면 가정환경은 지위환경(부모의 상태, 거주지의 생태적 환경, 사회 경제적 지위, 가족구성, 가옥상황 등)과 구조적 환경(문화적 상태, 언어모형, 강화체제, 가치 지향성, 학습체제 집단의 특성 등) 그리고 과정환경(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환경은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관계로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가정환경의 각 변인들은 모두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25) 정범모, 『학업성취 요인』 (서울 : 교육출판사, 1985), pp. 11-12.

한항문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178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검사, 학습습관 검사의 결과로서 가정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이 아동의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는데, 그 결과 첫째, 가정환경이 아동의 성장이나 학습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학습동기 의욕을 높이는데 크게 작용하며 가정환경이 좋은 아동이 학습습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로 가정환경의 심리적 환경은 학습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 물리적 환경이 학습습관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셋째로 심리적 가정환경 수준에 따른 남녀별 학습습관의 차는 남녀 모두 큰 차이를 보였으나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심리적 가정환경 수준에서 학습습관에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최경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변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고려되는 독립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모의 유무,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시간, 자녀의 성별, 자녀의 수, 가정의 월수입, 부모의 교육적 기대, 자녀 공부에 보내는 시간, 부모-교사 협의에 대한 요인을 들고 있는데 첫째, 가족배경 변인과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변인에 미치는 효과는 자아개념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 자녀의 성별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습습관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 어머니가 자녀 공부에 보내는 시간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로 어머니의 취업여부,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변인에 미치는 효과는 자아개념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업에 대한 태도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⁶⁾

3)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장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자녀의 전반적인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행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향문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취업모의 자녀보다 월등히 학업 성적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보다는 4학년에 있어서 성적의 차가 더 크고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²⁷⁾

또한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성적 차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직업이 교사인 자녀의 학업 성적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취업모의 자녀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취업모의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용숙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인성검사 결과 6개 영역(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사회성)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교사들의 인식 조사에서는 안정성에 있어서 취업

26) 최경섭, “취업여성 자녀의 불안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 65-66.

27) 한향문,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적 및 인성특성과 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제2집, 1982, pp. 101-102.

모의 자녀가 비취업모 자녀보다 나쁘다는 의견이고, 사회성에서는 취업모의 자녀가 더 좋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 있는 차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취업모 자녀들의 성격이 원만한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²⁸⁾

Hoffman과 McCord 등의 연구에서는 각각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아동(5~9세)이 직업을 갖지 않은 아동보다 더 높은 의존심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어머니의 직업과 가정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겸비되어 있을 때 아동의 의존적 행동은 더욱 의미있게 상관되었음을 보고하였다.²⁹⁾

그러나 연구자들은 아동의 의존심과 의존적 행동특성의 원인을 관련지어 어머니의 직업유무보다는 어머니의 훈육방법, 어머니 자신의 직업생활의 만족도,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관련지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어머니가 직업을 가졌느냐 아니냐 자체가 아동의 인성형성이나 학교성적,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심리적 안정도, 자신의 직업 또는 가정생활에의 만족도, 대리모의 종류 등 다른 주변적 요인이 더욱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³⁰⁾

또한 Hoffman은 그의 연구에서 취업주부는 자녀에 대한 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많은 비행을 낳게 하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하위층에서 많은 시

28) 이용숙, 최상근, 김영화, 전계논문, pp. 182-187.

29) L. W. Hoffman, "Effects of the Employment of Mothers on Parental power Relation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Task," *Marriage & Family Living*, 1960, pp. 27-35.

30) M. R. Yarrow, P. Scott, L. Deleeuw & C. Heining, "Child Rearing in Families of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Sociometry*, 1962, pp. 122-140.

간의 어머니의 부재는 비행을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³¹⁾

최경섭은 취업여성 자녀의 불안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동들의 집단이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아동보다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²⁾

이봉섭이 실시한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취업한 아동과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아동의 학업성취에서는 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개념에 있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³⁾

장운선은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부모의 유무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³⁴⁾

한편, 이지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취업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매우 낮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 가구소득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검증되어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이 장애요

31) L. W. Hoffman, *Effect on Child in Working Mothers* by lois Wlad, Hoffman, & F. Ivan eds. (San Francisco : Jossey-Bass, 1984), p. 4.

32) 최경섭, 전계논문, pp. 65-66.

33) 이봉섭, 전계논문, p. 32.

34) 장운선,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p. 60-61.

인이 된다는 통념과 상반된 결과로서 취업모의 자녀일지라도 어머니의 직업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가 높은 학업성적을 보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³⁵⁾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취업모의 자녀들이 비취업모의 자녀들보다 학업성적이나 성별, 사회성 등과 같은 특성에 있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어머니가 취업한 집단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특성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어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취업모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업유무나 가족환경 변인만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관련된 직업유형이나 교육수준,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고 아울러 선행 연구결과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자녀학습지원 정도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즉 교육적 기대, 그리고 의사소통의 개방성 등의 자녀교육태도를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으로 선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취업모의 자녀 교육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35) 이지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81-87.

Ⅲ. 조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는 현재 제주도 지역 3개 초등학교(동광교, 신광교, 남광교)에 재학 중인 5학년과 6학년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자녀 500명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별시 가정의 경제적인 변인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연구대상자들의 경제적 측면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산층 가정의 자녀가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0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항수정을 거쳐 1999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자에게는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면접 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75부(회수율 94.4%)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47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문항을 수정한 후 연구의

조사도구로서 작성하였다.

먼저 학업적 자아개념의 문항구성의 주요내용은 학업이나 학교성적 등의 학업관련 특성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로서 이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학업에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학습습관은 학교나 가정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습관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형성되어야 할 행동들을 측정하는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학습습관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 중 학습태도는 학교공부나 학업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관 혹은 태도로서 학업이나 학교공부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떤 목표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영역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아동의 학교성적은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국어와 수학의 지난 학기 성적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둘째, 응답자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학년과 성별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어머니 관련변인으로는 취업유무,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인 자녀학습지원 정도,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자녀와의 의사소통 개방성, 직업특성으로서 직업유형, 근무형태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고 응답자인 아동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거나 기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어머니 관련 변인으로서 자녀학습지원 정도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등을 이 연구에서는 자녀교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

하였는데, 이와 같은 변인을 선정한 이유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상의 변인들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이상의 변인들을 선정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변인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6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 23.4%로 연구대상자 어머니들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고졸이나 대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학습지원 정도를 보면 자주 도와준다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32.1%,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19.2%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녀학습지원 정도는 도와주지 않는 경우보다 도와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즉 교육적 기대를 살펴보면, 대졸이 5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원졸 이상은 38.1%로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력은 대부분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는 어머니와 자녀와의 대화가 얼마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특성으로서 39.3%가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매우 잘된다 31.6%, 그저 그렇다 23.4%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와 어머니간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

구 분		사례수	백분율	
교육수준	중졸 이하	35	7.5	
	고졸	299	64.3	
	대졸	108	23.2	
	대학원졸 이상	23	4.9	
자녀교육태도	자녀학습지원 정도	매우 자주 도와준다	22	4.6
		자주 도와준다	171	36.1
		그저 그렇다	152	32.1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91	19.2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38	8.0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고졸	13	2.8
		대졸	278	59.1
		대학원졸 이상	179	38.1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의사소통이 매우 잘된다	149	31.6
		의사소통이 잘된다	185	39.3
		그저 그렇다	110	23.4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다	21	4.5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	6	1.3
	취업유무	유	236	50.1
무		235	49.9	
직업특성	직업유형	농업/임업/어업	24	10.2
		단순노무직	35	14.8
		고용인, 판매기술직	27	11.4
		자영 상인제조업	28	11.9
		사무직	48	20.3
		전문직	29	12.3
		경영, 관리직	13	5.5
		기타	32	13.6
	직업 근무형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일함	87	36.9
		매주 정기적으로 며칠만 일함	22	9.3
		매일 오전, 오후 중 일정 시간	48	20.3
		매일 정시 출퇴근하며 일함	79	33.5

주.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살펴보면,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50.1%,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가 59.9%로, 취업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은 매일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형태의 직업뿐 아니라 어머니가 집에서 가정살림을 하는 전업주부 외에 밖에서 일을 하는 모든 형태의 직업유형을 포함한다.

어머니가 취업주부일 경우, 그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사무직이 20.3%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단순노무직 14.8%, 기타 13.6%, 전문직 12.3%의 순으로 어머니의 직업유형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일하는 경우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일 정시 출퇴근하며 일하는 경우가 33.5%, 매일 오전이나 오후 중 일정 시간에 일하는 경우가 20.3%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매우 정기적으로 며칠만 일하는 경우는 9.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취업한 어머니의 취업형태는 매일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보편적인 취업형태뿐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직장에 다닐 경우, 아동을 돌보는 대리모의 유형을 살펴보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14.0%, 할머니 및 할아버지 10.2%, 아버지 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더라도 특별히 대리모가 필요치 않은 연령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리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대리모가 존재하더라도 일부분 조부모나 아버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는 이상의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3-2>과 같다.

<표 3-2> 조사도구의 신뢰도

조 사 도 구		문 항 번 호	Cronbach α
학 업 성취도	학업적 자아개념	11-25	0.8927
	학 습 습 관	26-40	0.8345
	학 습 태 도	41-55	0.7993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 α 값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조사도구의 신뢰도 값이 신뢰도의 기준이 되는 $\alpha=.60$ 을 넘어서고 있어 이 연구의 조사도구의 문항들은 내적 일관성이 높은 신뢰성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업성취도를 구성하는 하부영역인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습습관 및 학습태도의 세 가지 조사도구에서 신뢰도 값이 거의 $\alpha=.80$ 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조사도구로서의 신뢰성과 문항간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타당한 조사도구라고 할 수 있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통

계기법은 먼저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을 신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t-test)을 이용하였다. 비취업모와 취업모 각각의 변인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취업모와 취업모 각각의 관련변인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등을 실시하였고,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의 해석

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값	유의도
취업	유	학업성적	236	81.82	7.86	0.54	0.59
	무		235	81.44	7.50		
유무	유	학업적 자아개념	236	2.76	0.31	-0.87	0.38
	무		235	2.79	0.33		
유무	유	학습습관	236	2.66	0.24	0.46	0.65
	무		235	2.65	0.27		
유무	유	학습태도	236	3.01	0.43	-1.57	0.12
	무		235	3.07	0.41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학업성취도의 하위영역인 학업성적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중인 아동은 평균점수가 81.82,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고 취업중이지 않은 아동은 81.44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자녀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적 자아개념을 살펴보면, 학업적 자아개념이란 학업이나 학교 성적 등의 학업관련 특성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로 평균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학업에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학업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자녀는 전체 5점 중 2.76인 반면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아동은 2.79로서 전업주부의 자녀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평균점수가 3점 이하인 것을 볼 때, 학생들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습습관은 학교나 가정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습관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형성되어야 할 행동으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학습습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취업중인 자녀는 학습습관의 평균점수가 2.66,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는 2.65로 비슷한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습습관 역시 학업적 자아개념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 중 학습태도를 살펴보면, 학습태도는 학교공부나 학업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관 혹은 태도로서 학업이나 학교공부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떤 목표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영역으로서 이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가치부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어머니가 취업중인 아동의 경우 학습태도의 평균점수가 3.01이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평균점수가 3.07로 어

머니가 전업주부인 자녀의 학습태도에 있어서의 평균점수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에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가 취업중인 자녀나 전업주부인 자녀의 학업성취도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학업성취도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특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어머니의 취업유무별로 살펴보려고 한다.



2.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

본 절에서는 비취업모의 경우,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자녀의 학업성적의 차이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자녀학습참여 정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등과 같은 자녀교육태도에 따라 학업성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과 같다.

〈표 4-2〉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D	표준편차	F(t)값	유의도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	76.24	①-③	7.28	5.04	0.0021**	
	고졸	155	81.52		7.32			
	대졸	47	83.52	①-④	9.05			
	대학원졸 이상	10	82.15	7.08				
자녀교육태도	자녀학습지원정도	매우 자주 도와준다	11	84.64	-	8.00	0.72	0.5772
		자주 도와준다	92	81.20		6.26		
		그저 그렇다	70	80.89		8.58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42	82.19		8.32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20	81.10		6.95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고졸	4	79.00	①-③	5.56	4.49	0.0122*
		대졸	138	80.31		8.41		
		대학원졸 이상	91	83.24	②-③	7.40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매우 잘된다	72	82.99	-	7.85	1.44	0.3399
		잘된다	95	81.06		6.68		
		그저 그렇다	54	81.13		7.57		
		별로 안된다	11	79.45		6.64		

* p<.05, ** p<.01

주) Duncan's Multiple Test

· 무응답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관련변인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p<.01),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 자녀의 학업성적의 평균점수가 8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대학원졸 이상 82.15, 고졸 81.52, 중졸이하 76.24 순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추후검증 결과, 중졸이하와 대졸이 각각 평균이 76.24, 83.52로 차이를 보였고, 중졸 이하와 대

학원졸 이상인 집단간에도 평균이 각각 76.24, 82.15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국어나 수학 등과 같은 중요과목의 수준이나 요구 등을 파악하여 가정에서의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보다 자녀의 학업성적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즉 교육적 기대에서도 자녀가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기를 희망하는 경우 학업성적의 평균점수가 8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졸인 경우 평균점수가 80.31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추후 검증결과, 고졸을 기대하는 경우와 대학원졸 이상을 기대하는 경우가 각각 79.00, 83.24로 평균에서의 차이를 보였고, 대졸과 대학원 이상을 기대하는 경우 평균이 각각 80.31, 83.23으로 자녀의 학업성적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학업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동기부여와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기대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어머니의 자녀학습지원 정도에서는 매우 자주 도와준다고 응답한 자녀의 평균점수가 84.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자주 도와준다 81.20으로 어머니가 자녀학습을 자주 지원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적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에서도 의사소통이 매우 잘된다고 응답한 자녀의 평균점수가 82.9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그

저 그렇다고 응답한 자녀의 평균점수가 81.13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학습지원 정도나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적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의 평균점수도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습에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어 좋은 성적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3>와 같다.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자녀학습지원 정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등의 모든 변인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 평균점수가 2.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졸 이상 2.79, 중졸 이하 2.76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녀학습지원 정도에서는 매우 자주 도와준다고 응답한 집단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가 2.8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자주 도와준다 2.81, 그저 그렇다 2.80 순으로 어머니가 자녀학습에 자주 지원할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4-3〉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값	유의도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	2.76	0.41	0.83	0.4781	
	고졸	155	2.82	0.32			
	대졸	47	2.75	0.36			
	대학원졸 이상	10	2.79	0.23			
자녀교육태도	자녀학습지원정도	매우 자주 도와준다	11	2.88	0.28	0.46	0.7656
		자주 도와준다	92	2.81	0.27		
		그저 그렇다	70	2.80	0.40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42	2.74	0.47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20	2.80	0.43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	고졸	4	3.09	0.19	1.58	0.2082
		대졸	138	2.80	0.33		
		대학원졸 이상	91	2.76	0.33		
	의사소통의 개방성정도	매우 잘된다	72	2.79	0.39	0.28	0.8901
		잘된다	95	2.81	0.27		
		그저 그렇다	54	2.76	0.34		
		별로 안된다	11	2.78	0.28		

· 무응답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미래 학력에 대해 고졸로 희망하는 경우 학업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가 3.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대졸 2.80, 대학원졸 이상 2.76 순으로 어머니가 기대하는 자녀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사소통의 개방성에서는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응답한 경우와 의사소통이 매우 잘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학업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가 각각 2.81, 2.79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비취업모일 경우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어머니의 자녀학습참여 정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등의 모든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아개념은 학업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인식과 평가로써 어머니와 관련된 특성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자신이 학업을 통해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자녀의 학습습관의 차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에 따른 학습습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개방성($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매우 잘된다고 응답한 경우 자녀의 학습습관의 평균점수가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잘된다 2.67, 그저 그렇다 2.5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습습관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추후검증 결과, 의사소통이 매우 잘되는 경우와 그저 그렇다, 별로 안된다는 집단이, 의사소통이 잘 된다와 그저 그렇다, 별로 안된다는 집단이 차이를 보였다.

〈표 4-4〉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따른 학습습관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D ^{주)}	표준편차	F(t)값	유의도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	2.62	-	0.20	1.57	0.1987	
	고졸	155	2.67		0.27			
	대졸	47	2.58		0.27			
	대학원졸 이상	10	2.69		0.28			
자녀교육태도	자녀학습지원정도	매우 자주 도와준다	11	2.51	-	0.30	1.37	0.2441
		자주 도와준다	92	2.68		0.24		
		그저 그렇다	70	2.66		0.28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42	2.61		0.30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20	2.63		0.27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	고졸	4	2.77	-	0.19	0.56	0.5728
		대졸	138	2.64		0.27		
		대학원졸 이상	91	2.66		0.28		
	의사소통의 개방성정도	매우 잘된다	72	2.69	①-③	0.26	2.05	0.0487*
		잘된다	95	2.67	①-④	0.25		
		그저 그렇다	54	2.58	②-③	0.29		
		별로 안된다	11	2.50	②-④	0.25		

* p<.05

주) Duncan's Multiple Test

· 무응답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학습습관은 학교나 가정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습관이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형성되어야 할 행동으로써 이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학습습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자녀일수록 자신의 학습습관에 대해서도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어머니의 교육방식이나 가치관이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는 자녀의 학습습관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자녀의 학습습관의 평균점수가 2.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졸 2.67, 중졸 이하 2.62 순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습관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어머니의 자녀학습지원 정도에서는 자주 도와준다고 응답한 집단이 평균점수가 2.86으로 가장 높고, 매우 자주 도와준다고 응답한 집단이 평균점수가 2.51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아니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에서는 자녀의 미래학력을 고졸 정도로 기대하는 경우 자녀의 학습습관의 평균점수가 2.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졸 이상 2.66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는 자녀의 학습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의 학습습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관련변인 중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자녀의 학습습관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습습관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형태로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4) 자녀의 학습태도의 차이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양육태도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개방성($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5〉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D ^{주)}	표준편차	F(t)값	유의도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	3.01		0.46	0.72	0.5399	
	고졸	155	3.07		0.38			
	대졸	47	3.08		0.46			
	대학원졸 이상	10	3.25		0.50			
자녀교육태도	자녀학습지원정도	매우 자주 도와준다	11	3.06		0.37	0.04	0.9973
		자주 도와준다	92	3.07		0.38		
		그저 그렇다	70	3.08		0.44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42	3.08		0.44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20	3.11		0.37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	고졸	4	3.08		0.78	0.38	0.6812
		대졸	138	3.06		0.39		
		대학원졸 이상	91	3.11		0.42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매우 잘된다	72	3.19	①-③	0.36	2.76	0.0288*
		잘된다	95	3.07	①-④	0.39		
		그저 그렇다	54	2.99	②-③	0.47		
		별로 안된다	11	2.95	②-④	0.35		

* p<.05

주) Duncan's Multiple Test

· 무응답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즉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매우 잘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녀의 학습태도의 평균점수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잘된다 3.07, 그저 그렇다 2.99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습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후 검증을 통해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의사소통이 매우 잘 된다와 그저 그렇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학습태도는 학교공부나 학업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관 혹은 태도로서, 학업이나 학교공부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떤 목표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나 학업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목표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태도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미래의 목표나 가치관을 형성·변화하게 된다.

즉 올바르게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이끌어 주게 되므로,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는 아동이 학습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올바른 학습태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어머니의 자녀학습지원 정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에서는 각 집단간에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비취업모 자녀의 학습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자녀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자녀의 학습태도 또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비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 즉 학업성적, 학업적 자아개념, 학습습관, 학습태도 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국어와 수학과 같은 학업 성적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학습습관이나 학습태도 등의 학업성취도에서는 다른 변인의 영향력보다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습습관과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의 중요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같은 변인이 학업성취도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밖에 어머니의 자녀학습지원 정도는 학업성취도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로는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를 통해 자녀에게 높은 학업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녀와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와 의사소통의 일방성이 아닌 개방성을 확보하여 어머니의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관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아닌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자녀학습지원 정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와 같은 자녀교육태도, 어머니의 직업유형, 어머니의 근로형태와 같은 직업특성 등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어떠한지 이러한 특성은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에서 나타난 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자녀의 학업성적의 차이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가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6>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D ^{주)}	표준편차	F(t)값	유의도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	80.82	-	8.13	1.47	0.2237	
	고졸	142	81.39		7.88			
	대졸	59	82.26		8.11			
	대학원졸 이상	13	85.92		6.30			
자녀교육태도	자녀학습지원 정도	매우 자주 도와준다	11	82.77	-	6.85	0.64	0.6321
		자주 도와준다	77	82.56		7.31		
		그저 그렇다	81	80.98		7.82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48	82.00		7.35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18	80.83		11.88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	고졸	8	78.75	①-②	6.13	7.94	0.0005***
		대졸	137	80.37	①-③	7.99		
		대학원졸 이상	88	84.36		8.88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매우 잘된다	77	84.03	①-④ ①-⑤	8.46	4.32	0.0022**
		잘된다	86	81.27		5.00		
그저 그렇다		56	81.37	9.13				
별로 안된다		10	74.35	8.11				
전혀 안된다		5	78.80	6.10				
직업특성	직업유형	농업/임업/어업	24	81.27	-	9.69	1.03	0.4127
		단순노무직	35	80.31		10.07		
		고용인/판매기술직	27	81.71		7.85		
		자영/상인제조업	28	82.13		5.74		
		사무직	48	81.26		6.99		
		전문직	29	85.52		5.54		
		경영/관리직	13	81.81		6.81		
		기타	32	80.86		6.34		
	어머니의 근로형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일함	87	80.97	-	7.86	1.98	0.1190
		매주 정기적으로 며칠 일함	22	84.59		6.24		
매일 오전, 오후 중 일정시간		48	80.49	8.72				
매일 정시 출퇴근함		79	83.15	7.93				

*** p<.001

주) Duncan's Multiple Test

· 무응답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p < .001$),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자녀에 대한 미래학력을 대학원졸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학업성적이 84.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졸 80.37, 고졸 78.75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도 역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추후검증을 통한 집단간 차이를 보면 대학원졸 이상과 고졸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학력은 자녀에게 강한 학업적 동기부여를 주게 되고 이에 따라 학과에 대한 학습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므로 이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개방성에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잘된다고 응답한 집단이 자녀의 학업성적이 8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81.37, 의사소통이 잘된다 81.27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업성적도 높게 나타나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추후검증 결과 의사소통이 매우 잘된다는 집단과 별로 안 된다는 집단, 그리고 전혀 안 된다는 집단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비취업모의 경우에서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자녀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

니의 취업유무 그 자체에 따른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 보다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도 심하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다른 변인보다도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시간 동안의 의사소통의 질적인 측면, 의사소통의 개방성의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비취업모의 자녀는 학업성적에 있어서 의사소통보다는 다른 변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취업모의 자녀는 어머니와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에 의해 다른 변인보다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질적인 측면을 더욱더 중시하게 되어 그러한 영향력이 학업성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밖에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자녀학습참여 정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의 직업유형이나 직업근로 형태, 대리모의 형태 등에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적에 차이가 날 것이라는 예상하에 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취업 그 자체나 그에 따른 직업유형, 혹은 근로형태, 대리모의 형태 등은 자녀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와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중요한 영향 변인으로서 취업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 그 자체가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취업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기

대학력 정도, 즉 교육적 기대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교육적 동기부여와 취업한 어머니가 자녀와 어떠한 의사소통 관계를 가지는가가 자녀의 학업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라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개방성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매우 잘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학업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가 2.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잘된다 2.75, 그저 그렇다 2.70, 의사소통이 별로 안 된다 2.1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취업모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학업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추후검증을 통해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의사소통이 매우 잘된다고 응답한 경우와 의사소통이 별로 안된다, 전혀 안된다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서의 의사소통 개방성 정도의 영향력과는 달리 취업모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서의 의사소통 개방성 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표 4-7〉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D ^{주)}	표준편차	F(t)값	유의도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	2.80	-	0.32	0.85	0.4698	
	고졸	142	2.77		0.29			
	대졸	59	2.80		0.32			
	대학원졸 이상	13	2.64		0.39			
자녀교육태도	자녀학습지원 정도	매우 자주 도와준다	11	2.64	-	0.35	0.92	0.4506
		자주 도와준다	77	2.74		0.33		
		그저 그렇다	81	2.81		0.27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48	2.85		0.28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18	2.73		0.41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	고졸	8	2.61	-	0.15	0.16	0.2016
		대졸	137	2.79		0.32		
		대학원졸 이상	88	2.74		0.28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매우 잘된다	77	2.83	①-④ ①-⑤	0.29	2.16	0.0447*
		잘된다	86	2.75		0.34		
그저 그렇다		56	2.70	0.29				
별로 안 된다		10	2.61	0.27				
전혀 안 된다		5	2.61	0.14				
직업특성	직업유형	농업/임업/어업	24	2.72	-	0.30	0.64	0.7206
		단순노무직	35	2.78		0.34		
		고용인/판매기술직	27	2.76		0.29		
		자영/상인제조업	28	2.83		0.28		
		사무직	48	2.70		0.35		
		전문직	29	2.73		0.31		
		경영/관리직	13	2.82		0.26		
		기타	32	2.81		0.30		
	근로형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일함	87	2.75	-	0.35	0.40	0.7543
		매주 정기적으로 며칠 일함	22	2.68		0.29		
		매일 오전, 오후 중 일정 시간	48	2.76		0.29		
		매일 정시 출퇴근함	79	2.71		0.36		

* p<.05

주) Duncan's Multiple Test

· 무응답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이상과 같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따른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변인의 차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유무 그 자체의 차이라기보다는

비취업모 자녀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학업적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필요정보는 스스로 인식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취업모의 자녀는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서 대화의 질이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에 영향을 받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그 어떤 변인보다도 의사소통의 개방성이나 대화의 질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 그 자체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시간의 제약하에 그 시간을 어머니와 자녀간 어떤 대화 관계를 형성하고, 얼마나 개방된 의사소통을 하는가가 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 특히 학업적 자아개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밖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자녀학습지원 정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어머니의 직업유형, 어머니의 직업 근로형태, 대리모의 유형과 같은 관련변인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3) 자녀의 학습습관의 차이

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른 자녀의 학습습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른 학습습관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값	유의도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	2.75	0.25	1.05	0.3695		
	고졸	142	2.66	0.24				
	대졸	59	2.65	0.21				
	대학원졸 이상	13	2.71	0.25				
자녀교육태도	자녀학습지원 정도	매우 자주 도와준다	11	2.65	0.33	0.56	0.6933	
		자주 도와준다	77	2.65	0.24			
		그저 그렇다	81	2.69	0.20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48	2.65	0.29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18	2.61	0.18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	고졸	8	2.64	0.20	0.73	0.4843	
		대졸	137	2.68	0.24			
		대학원졸 이상	88	2.64	0.24			
	의사소통의 개방성정도	매우 잘된다	77	2.64	0.26	0.31	0.8699	
		잘된다	86	2.67	0.22			
		그저 그렇다	56	2.68	0.23			
		별로 안 된다	10	2.66	0.25			
		전혀 안 된다	5	2.60	0.16			
	직업특성	직업유형	농업/임업/어업	24	2.69	0.19	1.72	0.1054
			단순노무직	35	2.69	0.26		
고용인/판매기술직			27	2.73	0.27			
자영/상인 제조업			28	2.72	0.23			
사무직			48	2.59	0.19			
전문직			29	2.64	0.24			
경영/관리직			13	2.53	0.23			
기타			32	2.65	0.28			
근로형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일함	87	2.64	0.25	1.40	0.2447	
		매주 정기적으로 며칠 일함	22	2.61	0.29			
		매일 오전, 오후 중 일정 시간	48	2.72	0.24			
		매일 정시 출퇴근함	79	2.66	0.22			

· 무응답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의 학습습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와 관련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자녀의 학습습관의 평균점수가 2.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원졸 이상 2.71, 고졸 2.66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습습관의 평균점수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녀학습지원 정도에서는 지원 정도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점수가 2.6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매우 자주 도와준다와 자주 도와준다 2.6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에서는 대졸 수준의 기대를 하는 경우가 2.68, 의사소통의 개방성의 정도에서는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2.68, 어머니의 직업유형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이 고용인/판매기술직인 경우 2.73, 어머니의 직업근로형태가 매일 오전이나 오후 중 일정 시간에 일하는 경우 2.72로 자녀의 학습습관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취업모의 경우 관련변인이 자녀의 학습습관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평균점수의 차이에서도 관련변인의 변화에 따른 정적인 평균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취업모의 자녀는 비취업모 자녀에 비해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학습습관을 형성하여 학습생활을 진행해 나가므로 취업한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자녀의 학습태도의 차이

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른 자녀의 학습태도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9>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른 학업태도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D ^주	표준편차	F(t)값	유의도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	3.06	-	0.43	0.83	0.4766		
	고졸	142	2.98		0.42				
	대졸	59	3.05		0.44				
	대학원졸 이상	13	3.15		0.47				
자녀교육정도	자녀학습지원 정도	매우 자주 도와준다	11	2.90	-	0.41	0.70	0.5917	
		자주 도와준다	77	3.05		0.43			
		그저 그렇다	81	2.98		0.42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48	2.98		0.48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18	3.13		0.31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	고졸	8	3.13	-	0.43	0.30	0.7399	
		대졸	137	3.00		0.40			
		대학원졸 이상	88	3.02		0.47			
	의사소통의 개방성정도	매우 잘된다	77	3.09	①-⑤ ②-⑤ ③-⑤ ④-⑤	0.41	2.68	0.0330*	
		잘된다	86	3.05		0.41			
		그저 그렇다	56	2.91		0.44			
		별로 안 된다	10	2.90		0.49			
		전혀 안 된다	5	2.64		0.37			
		직업특성	직업유형	농업/임업/어업		24			3.01
	단순노무직			35	2.96	0.37			
고용인/판매기술직	27			2.97	0.41				
자영/상인제조업	28			3.01	0.44				
사무직	48			2.94	0.46				
전문직	29			3.25	0.37				
경영/관리직	13			2.98	0.54				
기타	32			3.18	0.38				
근로형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일함		87	3.03	-	0.38	1.79	0.1505	
	매주 정기적으로 며칠 일함		22	3.05		0.46			
	매일 오전, 오후 중 일정 시간		48	2.96		0.38			
	매일 정시 출퇴근함		79	3.14		0.43			

* $p<.05$

주) Duncan's Multiple Test

· 무응답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즉,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매우 잘된다고 응답한 경우 자녀의 학습태도의 평균점수가 3.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잘 된다 3.05, 그저 그렇다 2.91 순으로 나타나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습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추후검증을 통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의사소통이 매우 잘 된다와 잘된다, 의사소통이 전혀 안된다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비취업모 자녀의 학습태도와 같은 결과로서 비취업모 뿐 아니라 취업모 자녀의 경우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어머니의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관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어머니의 사고가 자녀와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혹은 개방적으로 진행하게 될수록 자녀의 학습태도 또한 가치와 미래지향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학습태도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어머니의 자녀학습지원 정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어머니의 직업유형, 어머니의 직업근로 형태, 대리모의 형태 등의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의 학습태도는 차이가 없었고,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4. 비취업모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관관계와 영향력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과 자녀의 학

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영향력 검증을 통하여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관련변인 중 어떤 변인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머니 관련변인의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비취업모의 교육수준 및 자녀교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비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학업성취도 관련 특성	학업성적	학업적 자아개념	학습습관	학습태도
	상관계수(r)	상관계수(r)	상관계수(r)	상관계수(r)
교육수준	0.2420**	-0.0203	-0.0523	0.0785
자녀학습 지원정도	0.0381	0.0647	0.0362	-0.0223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	0.2238**	-0.0897	0.0168	0.0546
의사소통 개방성정도	0.1876	0.0279	0.1399*	0.2001**

* p<.05, ** p<.01

먼저 학업성적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r=.2420$), 자녀의 기대학력 정도($r=.223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비취업모 자녀의 경우 학업성적에 대한 교육수준과 자녀의 기대학력 정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기대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도 높게 나타남을 예상할 수 있다.

학업적 자아개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비취업모 관

련변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학습습관에서는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r=.13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다른 요인보다 자녀의 학습습관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태도에서도 학습습관과 같이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r=.2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는데 즉 어머니와 자녀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습태도도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2)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 등의 특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비취업모의 교육수준 및 자녀교육태도의 영향력

관련 특성	학업성취도	학업적 자아개념	학습습관	학습태도
	B(β)	B(β)	B(β)	B(β)
교육수준	1.88(0.16)**	-0.001(0.00)	-0.03(0.06)	0.03(0.05)
자녀학습 지원정도	0.48(0.04)	0.02(0.04)	0.04(0.10)	-0.01(0.02)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	2.06(0.15)*	-0.07(0.12)	0.01(0.02)	0.03(0.04)
의사소통 개방성 정도	0.67(0.07)	0.01(0.02)	0.05(0.12)*	0.12(0.21)**
상수	75.00***	3.04***	0.67***	3.13***
R ²	0.2693	0.0949	0.1266	0.2508

* $p<.05$, ** $p<.01$ *** $p<.001$

먼저 학업성적에서는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통해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0.16$)과 자녀의 기대학력정도($\beta=0.15$) 등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26.9%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습습관에서는 의사소통의 개방성정도($\beta=0.12$)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12.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습습관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기대학력 정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어떤 교육적 기대를 통한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가,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간의 대화가 얼마나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녀학습지원 정도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구대상자인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이제 어머니의 직접적인 학습지원 그 자체보다는 스스로 학업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올바른 자아개념이나 학습습관, 학습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어머니와의 적절한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교육적기대가 직접적인 학습지원보다는 더 큰 영향을 비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녀학습지원 정도는 초등학교 5,

6학년보다는 저학년인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 취업모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관관계와 영향력

1)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관련특성	학업성취도	학업성적	학업적 자아개념	학습습관	학습태도
		상관계수(r)	상관계수(r)	상관계수(r)	상관계수(r)
교육수준		0.1245	-0.0442	-0.0423	0.0721
자녀학습지원정도		0.0608	0.0352	0.0201	0.0265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		0.2378***	-0.0118	-0.0639	0.0008
의사소통 개방성정도		0.2488***	0.1620*	0.0379	0.2075**
직업유형		-0.0910	0.0327	0.0447	-0.0335
근무형태		0.1112	-0.0505	0.0431	0.0890

* p<.05, ** p<.01, *** p<.001

먼저 자녀의 학업성적과의 상관성을 보인 변인으로는 자녀의 기대학력 정도($r=.2378$),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r=.2488$)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수준이나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등이 자녀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학업적 자아개념에서는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r=.1620$)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학습태도에서도 의사소통의 개방성의 정도($r=.2075$)가 높은 상관성을 보여 학업적 자아개념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습습관에서는 비취업모의 경우와 달리 취업모와 관련된 변인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취업모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학업성취도의 하부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13>과 같다.



<표 4-13>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의 영향력

관련특성	학업성취도	학업성적	학업적 자아개념	학습습관	학습태도
		B(β)	B(β)	B(β)	B(β)
교육수준		0.11(0.01)	-0.02(0.05)	-0.04(0.13)	0.02(0.03)
자녀학습지원정도		0.18(0.02)	0.08(0.19)	0.03(0.08)	0.04(0.06)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		4.76(0.33)***	-0.05(0.09)	-0.03(0.08)	0.05(0.07)
의사소통 개방성정도		1.97(0.19)***	0.06(0.15)*	0.01(0.02)	0.07(0.10)**
직업유형		-0.19(0.05)	0.00(0.02)	0.00(0.00)	-0.03(0.13)
근무형태		0.85(0.14)	-0.02(0.09)	0.01(0.01)	0.03(0.09)
상수		71.19***	2.81***	2.78***	2.89***
R ²		0.3686	0.1657	0.1371	0.1492

* $p<.05$, ** $p<.01$, *** $p<.001$

먼저 학업성적에서는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통해 영향력있는 변인을 살

펴본 결과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정도($\beta=0.33$)와 의사소통의 개방성정도($\beta=0.19$)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38.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적도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적 자아개념에서는 의사소통의 개방성정도($\beta=0.15$)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6.6%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취업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학습태도에서도 의사소통의 개방성정도($\beta=0.10$)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3.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올바른 학습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취업모의 경우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자녀의 기대학력 정도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잘 이루어질수록 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 개방성 정도는 앞서 살펴본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취업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를 통한 강한 동기부여 뿐 아니라 자녀와 어머니간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적절한 대화와 개방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에게 어머니의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관 및 지식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관련변인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때,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연구에서 밝혀졌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이 초등학교 5, 6학년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교육에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믿고 있는 사회적인 경향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71부를 연구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AS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평균, 백분율, 카이검증(Chi Square Test),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어머니가 취업중인 자녀나 전업주부인 자녀의 학업성취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서,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해준다.

둘째, 비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 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의 평균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습에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어 좋은 성적을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어머니의 자녀학습참여 정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등의 모든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아개념이 학업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인식, 혹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신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학업적 자아개념은 학업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인식과 평가로서, 어머니와 관련된 특성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학업을 통해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른 학업성취도에 비해 어머니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습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관련변인 중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자녀의 학습습관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습습관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형태로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학습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자녀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자녀간 얼마나 의사소통이 개방되어 있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자녀의 학습태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취업모의 교육수준, 자녀교육태도, 직업특성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자녀의 학업성적에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와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도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취업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즉 교육적 기대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교육적 동기부여와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어떠한 의사소통의 관계를 가지는가가 자녀의 학업성적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습태도에서는 의사소통의 개방성의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취업모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습습관에서는 취업모와 관련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관련변인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해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우선 비취업모의 경우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기대학력 정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녀학습지원 정도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자녀의 기대학력정도나 의사소통의 개방성정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잘 이루어질수록 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의사소통 개방성 정도는 앞서 살펴본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어머니의 취업 그 자체의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취업유무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막연한 사고보다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로써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정도를 통해 자녀에게 높은 학업적 동기부여를 주고 자녀와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와 의사소통의 일방성이 아닌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업모는 의사소통 개방성 정도에서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적에 미

치는 영향보다 크게 나타남을 볼 때,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를 통한 강한 동기부여 뿐 아니라 자녀와 어머니간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자녀가 올바르게 긍정적인 학업성취도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녀와의 일정한 대화 시간을 생활화하고, 개방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어머니와의 올바른 관계성 회복과 아울러 어머니의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관 및 지식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할 사항을 제시하면, 이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일정 정도 한계가 따른다.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향 요인으로써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영향력이 가족환경 변인이나 자녀특성 변인 등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는가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어머니 관련변인 뿐 아니라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가. 단 행 본

김기석, 『학습습관 검사 해설 및 시행요칙』, 서울 : K. T. C, 1962.

정범모, 『학업성취 요인』, 서울 : 교육출판사, 1985.

정원식 외, 『아동발달과 생활지도Ⅱ』,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2.

정원식, 『인간관 교육』, 서울: 음영사, 1975.

정원식,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1980.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4.

나. 논 문

길경옥,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학업성적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김경숙,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성격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김길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자녀의 정의적 특성 및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영길,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발전방안 탐색”, 『교육연구』, 296호, 1994.

김영화,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학업성취”, 『여성연구』, 31호, 1991.

김용관, “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적과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장운선,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박도순, “교육의 본질과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진흥』, 31호, 1996.

박선환, “성취동기 육성 훈련이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 태도,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백경선, “협동학습이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성발달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송인섭, “자아개념의 측정 및 평가”, 중앙교육평가원 연구보고, 1987.

유경숙,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태도 및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유수남, “어머니의 직업유무 및 가정환경과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이동택,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이봉섭,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영희, “인지양식, 정의적 특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용숙, 최상근, 김영화, “어머니의 취업과 학교 교육 및 자녀의 성취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1988.
- 이종두, “구조화된 협동학습 전략과 집단보상 제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종승, “자아개념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 이지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장운선,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조의숙,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한 일 연구-학업습관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논문집』, 제16집, 1986.
- 최경섭, “취업여성 자녀의 불안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최정훈, “학습동기와 습관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1.
- 한항문,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적 및 인성특성 및 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교육총론』, 제2집,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황정규, “정의적 행동특성, 사회계층, 학교성적의 인과관계,” 『고려대학교 사범대논문집』, 1977.

다. 기타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6월호, 1998.

2. 외국 문헌

Bloom, B. S.,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McGraw-Hill Company, 1976.

Hall, C. S., & G. Linzey, *The theory of personality*, N. Y. : willey and sons, Inc., 1978.

Hoffman, L. E., "Effects of the Employment of Mothers on Parental power Relation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Task," *Marriage & Family Living*, 1960.

Hoffman, L. W., *Effect on Child in Working Mothers by lois Wlad*, Hoffman, & F. Ivan eds., San Francisco : Jossey-Bass, 1984.

Hutnet, F. C., "Mother's Education and Working: Effect on the School Child," *Journal of Psychology*, Vol, 82, 1972.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1965.

Shavelson, R. J., "Self-Concept : Validation of Construed Interpret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1976.

Taylor, D. M., "Changes in the Self Concept without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3), 1955.

Yarrow, M. R., P. Scott, L. Deleeuw & C. Heining, "Child Rearing in
Families of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Sociometry*,
1962.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Mother's Employment on
Her Child's Achievement
- in the city of Cheju -**

Park Young Son

Commerc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eong-C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how mother's employment affected elementary school fifth- or sixth- grade child.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below:

First, what kind of difference does a mother's employment make to her child's achievement?

Second, what kind of difference do an unemployed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and maternal attitude make to her child's achievement?

Third, what kind of difference do an employed mother's educationa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background, maternal attitude and job characteristics make to her child's achievement?

Fourth, what is an unemployed mother's influence of educational background and maternal attitude on her child's achievement?

Fifth, what is an employed mother's influence of educational background, maternal attitude and job characteristics on her child's achievement?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against the fifth- and sixth-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s who lived in the city of Cheju. Among them, the responses from 471 were chosen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AS program, and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experimental analysis were frequency, mean, percentage, Chi-Square test,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ether a mother was employed or not didn't mak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o all the subdomains of her child's achievement.

Second, for unemployed mothers, their children's achievemen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their expectation for child's educational level, and their degree of communication openness.

Third, for employed mothers, their children's achievement was different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ir expectation for child's

educational level and their degree of communication openness.

Fourth, for unemployed mothers, their children's achievement was more positively affected by their better educational background, their higher expectation for child's educational level, and their better communication openness.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supporting child's learning didn't have an influence.

Fifth, for employed mothers, their children's achievement was more positively influenced by their higher expectation for child's educational level and their better communication openness.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 자기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공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문항이라도 빠지면 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사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두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성의 있고 솔직한 응답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999년 3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업교육 전공 박 영 선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1. 학생의 학년은? _____ 학년
2. 학생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학생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 학생어머니는 학생의 숙제나 공부를 도와주십니까?
① 매우 자주 도와주신다 ② 자주 도와주시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와주시지 않는다 ⑤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다
5. 학생에 대해 어머니가 기대하는 최종학력은 어떠합니까?
① 고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이상
6. 학생은 평소에 대화를 통해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학생 어머니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학생 어머니의 직업유형은 어떠합니까?
① 농업/ 임업/ 어업
② 단순노무직(식당종업원, 행사, 노동자, 수위, 청소부, 파출부 등)
③ 고용인, 판매기술직(점원, 외판원, 이·미용사, 요리사 등)
④ 자영 상인 제조업자(세탁소, 양복점, 개인택시기사 등 도소매업 등)
⑤ 사무직(계장급 이하 회사원, 공무원, 군인 등)
⑥ 전문직(교사, 약사, 의사, 체육인, 회계사, 변호사 등)
⑦ 경영, 관리직(과장급 이상의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⑧ 기 타 _____

9. 학생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계신 경우, 어머니는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일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하는일
- ② 매주 정기적으로 며칠만 하는일
- ③ 매일 오전, 혹은 오후로 하루중 일정시간만 하는 일
- ④ 매일 정시에 출근하여 8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하는 일

10.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 집에 계시지 않는 동안, 학생을 보살펴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 ① 아버지 ② 할머니 ③ 친척 ④ 가정부 ⑤ 기 타 ⑥ 없 다

※ 다음 문항은 자아개념에 대한 문항입니다. 학생의 견해와 일치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나는 공부를 잘한다.					
12	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14	나는 학교성적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5	나는 열심히만 하면 모든 과목을 잘 할 수 있다.					
16	나는 공부를 잘하므로 선생님과 부모님께 칭찬을 많이 받는다.					
17	나는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18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					
19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20	나는 공부를 못해서 창피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21	나는 다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도 잘 해낼 수 있다.					
22	나는 학교공부를 쉽게 배운다.					
23	나는 친구들에 비해 학교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24	나는 공부에만은 꼭 성공할 것 같다.					
25	나는 학교공부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 다음은 학습습관에 대한 문항입니다. 학생의 견해와 일치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6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듣는다.					
27	나는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잘 하는 편이다.					
28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한다.					
29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중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고 듣고 필기한다.					
30	나는 시험공부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공부한다.					
31	나는 책을 읽을 때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책의 내용을 머리속에 정리해 가며 읽는다.					
32	나는 선생님이 내가 해 온 숙제 중 틀린 것을 표시해도 그것을 다시 들여다 보지 않는다.					
3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을 그때 그때 확실히 알고 넘어간다.					
34	나는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놀 때는 열심히 논다.					
35	나는 수업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은 꼭 챙겨간다.					
36	나는 숙제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37	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만 공부한다.					
38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은 집에서 반드시 복습한다.					
39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 한다.					
40	나는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잡담을 잘 하는 편이다.					

※ 다음은 학습태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학생의 견해와 일치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1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					
42	공부는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43	공부시간이 지루해서 수업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44	학교공부는 선생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된다.					
45	학교생활에서 공부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46	학교에서는 필요 없는 과목을 많이 배우는 것 같다.					
47	학교숙제는 적당히 해 가도 된다.					
48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안 해도 된다.					
49	예습, 복습은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50	좋은 성적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51	학교성적은 나의 장래와 별 관계가 없다.					
52	학생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3	공부는 귀찮고 하기 싫은 것이다.					
54	학교공부가 재미없어서 방학 기간을 더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55	공부는 열심히 할수록 재미있는 것이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